

## 「작은 구름」: 찬들러의 소인(小人) 기질

김 철 수

### I. 들어가는 말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장년기 단편들 중 첫 작품인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은 「두 건달들」(“Two Gallants”)과 더불어 이미 구성된 단편집 속에 뒤늦게 삽입된 작품으로서, 서술자의 은유적 문체와 등장인물의 내적 서술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통해 주인공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결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고 있다(Riquelme 79-80).

이 단편의 주인공 토마스 찬들러(Thomas Chandler)는 작품 내의 서술자 뿐 아니라 작품 바깥의 평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우선 우람하고 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작고, 연약하고, 세심한 그의 외모를 근거로 서술자는 그를 “꼬마 찬들러”(Little Chandler)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패트릭 패린더(Patrick Parrinder)는 찬들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

---

1) James Joyce,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p. 70. 이후 본문 인용은 본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D라고 명기하고 페이지 수만 표시함.

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독립을 위한 진정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재능과 힘마저 부족한 내적 망명자들 중 한 사람”(263)이라고 주장하고, 피이크(C. H. Peak)는 예술가적 감수성이 연약한 영혼에 의해 억눌려 있는 찬들러는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들 중 가장 우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그의 곤궁한 처지를 통해 야기되는 동정심이 더블린의 문필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더불어 이 작품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30).

그런가 하면 필립 헤링(Philip Herring)은 찬들러가 가진 자질들을 열거한 다음 그것들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으면 조이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적인 예술가의 모습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58), 더 나아가서 찬들러는 “결혼생활과 소심한 성격 그리고 예술적 근시안이라는 탓에 사로잡힌”(170) 인물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프리츠 센(Fritz Senn)은 속된 기대와 환상 그리고 허풍과 그에 대한 환멸과 시기로 이어지는 본 단편의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처음에는 견고하게 보이던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104-111).

덧붙여, 헤링은 본 단편에 등장하는 두 친구인 꼬마 찬들러와 갤러허에 대하여, 이 두 인물은 조이스가 작품을 쓸 당시 더블린에 거주했을 법한 소위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5).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착상된 이 두 사람은 비록 조이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으나, 만일 조이스 자신도 더블린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갖고 그들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단편에는 조이스 자신의 삶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들어 있다. 1906년 8월 12일자 동생인 스타니슬로스(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올리버 고가티(Oliver Gogarty)라는 친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찬들러와 갤러허의 관계를 연상할 수 있게 된다.<sup>2)</sup> 심지어 그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찾는 고가티를 연상하며, 갤러허의 미래 결혼식에서 그들 부부에게 무병장수를 빌어주는 꼬마 찬들러를 흉내 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SL 94). 또한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조이스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곤고했던 파리 시절에 『더블린 사람들』의 ‘꼬마 찬들러’처럼 자신의 시나, 자신이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

2) Richard Ellmann, ed., *Selected Letters* (New York: Viking Press, 1975), pp. 93-94. 이후 조이스의 편지는 본서에 의거하며 SL로 표기하고 면수만 표시함.

혹은 당시에 자신이 쓰고 있던 글귀들을 암송하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한다 (Stanislaus 231-2).

본 단편에 대하여 조이스 자신은 “「작은 구름」의 한 페이지가 다른 모든 운문들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다”(SL 121)고 말할 정도로 애정이 매우 각별했으며, 또한 그는 「두 건달들」과 이 작품을 자신의 단편집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정작업마저도 감수하겠노라고 편집자인 그랜트 리차아즈(Grant Richards)에게 편지하기도 했다(SL 89).

김종건 교수의 주장처럼 “내성적이며 햄릿형이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나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나 『피네간의 경야』의 셜(Shem)과 유사하며, 여러 면에서 작가인 조이스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123-4) 챌들러의 외모와 의식, 그리고 행동은 중국의 선진유가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인간상인 군자(君子)와 소인(小人) 중 후자인 소인을 연상하게 한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꼬마”(Little)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작은 체구와 알팍한 재능으로 허망한 꿈을 꾸다가 좌절하는 챌들러에 대한 서술자의 조소어린 묘사를 읽는 독자는 다시 한 번 ‘노오몬’(gnomon)처럼 챌들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한 상태가 곧 선진유가에서 말하는 ‘소인’의 기질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챌들러의 별명과 외모 및 행동양식 그리고 그의 성품으로부터 연상되는 선진유가의 ‘소인’의 개념을 그 상대 개념인 군자의 개념과 비교하여 재고해보고, 그 연관성과 현대적 변화의 추이를 탐색함으로써, 조이스의 인물 설정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동양철학의 관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군자와 소인: 동양철학의 두 인간상

본래 군자와 소인의 개념은 중국 춘추 시대에 정전제를 바탕으로 한 귀족이나 군주 등의 통치자 계급과, 농수공업자나 상인, 혹은 일반적인 평민과 같은 피통치자 계급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sup>3)</sup> 그러나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할 통치계급이 오히려 무력을 앞세워 세력 확장을 도모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자, 공자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추구해야 할 새로운 윤리적 인간상으로 군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다.

이처럼 공자에 이르러 정치적 개념에서 윤리적 개념으로 변모하게 된 군자의 위상은 인간이 “수양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의 인격체”(노인숙 282)이며, 그것은 또한 공자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지향점이기도 하다. 공자 자신은 『論語』의 첫 장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人不知不慍 不亦君子乎, 『學而』, 3章)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을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나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堯曰』, 3章)라고 마무리함으로써, 군자 개념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論語』의 「公治長」편에도 공자가 제자인 자산(子産)에게 군자의 네 가지 덕목을 논하면서, “개인행동은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데는 공경스럽고, 백성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데는 은혜롭고, 백성을 부리는 데는 올바른 길에 의거한다”(子謂 子産, 有君子之道四焉 :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論語』, 「公治長」, 17章)고 가르친 내용이 나와 있다. 공자를 그 “이전까지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孔子之謂 集大成, 『孟子』, 「萬章 章句」 下, 1章)이라고 극찬한 맹자 역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君子三樂)을 논하면서, “첫째는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들에게 연고가 없는 것이며, 하늘을 우러러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둘째의 즐거움이요, 셋째는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孟子曰 君子有三樂,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而王天下不與存焉. 『孟子』, 「眞心長句」 上, 20章)고 가르침으로써 의로움에 기반을 두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충실하며 타인에게 자애로운 군자의 성품을 강조했다.

이처럼 『논어』나 『맹자』 등 선진유가의 가르침에서 ‘군자’의 개념과 함께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소인’의 개념 역시 애초의 피통치인을 의미하던 정치적 개념에서 윤리적 개념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덕을 키우지 못하고 소홀히 해서 그

3) 군자와 소인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 따른 연구는 조성열, “『논어』, 『맹자』에 나타난 군자/소인, 대인/소인 연구,” 『철학논구』 제34집(2007): 1-26 참조.

뜻이 작은 사람”(김승혜 347-8)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지향’ 되어야 할 군자의 개념과 대비되어 ‘지양’ 되어야만 할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지향’과 ‘지양’을 바탕으로 한 이분법적인 ‘군자’와 ‘소인’의 개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었는데, 예컨대 이경남은 “『論語』에 나타난 소인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소인 개념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군자와 소인의 복합체로 여기고,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인상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이상형으로 나갈 수 있다”(157)고 주장하며, 목표점으로서의 군자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소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고명하고 추상적인 천리를 추구하는 군자와는 달리 소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고(君子上達, 小人下達, 『論語』, 「憲文」, 24章), 둘째, 그러한 소인의 태도와 언행은 도덕적 지향점보다는 현실적 실리와 인간관계를 고려하며(君子 喻於義, 小人喻於利, 『論語』, 「里仁」, 16章), 재빠른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子曰 君子 坦蕩蕩 小人 長戚戚, 『術而』, 36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의 책임을 스스로가 지려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인다(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論語』, 「衛靈公」, 20章).<sup>4)</sup>

요컨대 그는 『논어』에 나타난 군자와 소인의 대비는 전자를 강조하고 후자를 규탄하고 제거하기 위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소인의 성품이 모든 평범한 인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인 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수행을 통해서 군자의 성품으로 변모 및 확충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소인에 대한 다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이와 같은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복잡해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극적인 소시민들의 사고와 태도에 대한 단순한 조롱이나 비판의 단계를 넘어서서 “측은지심”(惻隱之心, 『孟子』, 「公孫丑」,

4) 군자와 소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이경남, “『論語』에 나타난 소인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 32집(2003): 153-182 참조. 이경남은 (1) 소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2) 소인의 태도와 언행, (3) 소인의 역량 등의 제목 하에 소인의 특성을 정리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중요한 일부 특성을 바탕으로 챌들리의 성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上, 6章)을 바탕으로 한 연민과, 존양과 확충을 통한 군자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군자와 소인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현대적 해석의 방식은, 더블린 사람들의 실질적인 마비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잘 뒤여진 거울”(Letters I, 63-64)의 역할을 하기위해 착상된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 속에서 ‘비판적 연민’이라는 모순어법(Oxymoron)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 III. 꼬마 챌들러 대(對) 소인 챌들러

#### 1. 君子上達, 小人下達: 군자는 위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에 통달한다

켈트파 시인(Celtic School)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챌들러는 그 왜소한 체구 때문에 꼬마 챌들러라고 불리지만, 그의 외모는 항상 흠 잡을 데 없이 잘 가꿔져 있고, 그의 미소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배어 있다(D 70). 여기서 조이스는 헤링이 말한 “부정의 기법”(techniques of negation, 55)을 이용해서 깔끔한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 다소 유치한 성품을 가진 미숙한 혹은 실패한 예술가 지망생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공자는 “겉모습은 엄숙하나 속이 유약한 것은 소인에 비유한다면 벽에 구멍을 뚫는 도둑과 같다”(子曰 色厲而內荏 譬諸小人 其猶穿窬之盜也與, 『論語』, 「陽貨」, 12章)고 가르치면서 소인의 표리부동을 비판하였고, “바탕이 외양을 압도하면 거칠고 촌스러워지고, 외양이 바탕을 압도하면 공허함을 면키 어렵다. 화려함과 소박함이 적당히 배합되어야 비로소 군자인 것이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論語』, 「雍也」, 18章)고 하면서 외양과 성품의 일치를 강조했다.

이제 몇몇 중요한 본문의 내용들을 탐색함으로써 이처럼 표리부동의 상태에 있는 챌들러의 외모와 심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년 전 그는 그의 친구를 노드 윌 부두에서 전송하며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갤러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사교적인 태도, 잘 재단해서 입은 트위드

양복, 대담한 말투 등으로 그것을 이내 알아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재주를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았고, 또한 것처럼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은 예는 더욱 드물었다. 깰러허는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으므로 그가 성공한 것은 당연했다. 이와 같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값진 일이었다. (D 70)

작품의 시작 부분은 런던으로 떠난 지 8년 만에 성공한 언론인이 되어 돌아온 친구와의 만남에 대한 챌들러의 들뜬 기대감을 묘사하고 있다. 외견상 챌들러는 친구인 깰러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헤링은 이 문단이 챌들러가 깰러허에 대하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듯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56)고 주장하고, 센은 여기에 나타난 챌들러의 생각은 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가 “즐거운 기대감에 혼자 생각한 것이거나 남편의 외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게 될 까다로운 아내에게 전달해 줄 내용을 되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107)는 의견을 피력한다.

사실 이 문장에 나타난 깰러허의 성공에 대한 챌들러의 묘사가 자기기만이건 기대감이건 간에 그 기준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외형적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즉 깰러허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외모와 옷차림새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명하고 추상적인 천리”를 추구하는 군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소인의 특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의 이유가 자신의 의심스러운 예술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친구”(D 70)가 자신의 시 한편을 “런던의 신문에 발표해줄 수 있을 것”(D 73)이라는 상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인 식민지인 근성과 소인 기질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의 모든 궤적을 예술의 대상으로 여기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나 『울리시즈』의 주인공인 스티븐과 달리, 이 단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예술가 지망생인 챌들러는 출세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런던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되고 싶은 욕망만 있을 뿐, 실질적인 능력이나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하키 시간을 알리는 소리에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의 소리를 신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리의 외침”(U 2.28)이라고 명명한 『울리시즈』의 예술가 지망생 스티븐과는 달리, 꼬마 챌들러에게 그가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남루한 어린 아이

들은 그저 피해가야 할 대상이며, 과거의 역사도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난다(D 71-72). 챌들리의 이러한 모습을 헤링은 “자신의 환경만 생각하느라고 경치와 삶 사이에 그 어떠한 연결도 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59).

지금 현재 그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런던에서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갤러허와의 만남이다. 이와 같은 챌들리의 빈약한 예술가 기질 역시 ‘상달’보다는 ‘하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소인의 기질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존 폴 리켈름(John Paul Riquelme)은 서술자가 우아한 과거의 기억을 불러들이는 고급의 문체와 지저분한 현재를 상기시키는 저급의 문체를 병치함으로써 주인공인 꼬마 챌들리의 의식과 서술자의 문체 사이의 예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80).

이처럼 챌들리는 갤러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의 눈에 띄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바탕으로 예술혼을 일깨우거나 자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까닭 없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우울감의 근거는 아마도 더블린에 사는 자신이 런던에서 성공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음을 “자신의 단조롭고 비예술적인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져 런던으로 한층 가까이 접근하는”(D 73) 걸음으로 여기고 있는 챌들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돈 기포드(Don Gifford)의 지적대로 챌들리의 사무실(King's Inn)에서 콜리스(Corless) 바까지의 거리는 런던 방향으로 약 1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런던에 가까이 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69), 여기서 챌들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물리적 거리보다는 그가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접근성과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다.

## 2. 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 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케이플가(Capel Street)를 지나면서 챌들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인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블린을 떠나야 했다.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D 73)라고 되뇌는다. 일견 그는 식민지 더블린의 무기력한 삶을 한탄하며 그러한 마비의 상태를 탈출하기를 염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의 고뇌는 “자식을 잡아먹는 암태지”(P 203) 같은 조국 아일랜드의 이율배반을 비난하는 젊은 예술가의 것도, “악몽 같은 역사”(U 2.28)로부터 깨어나고자 하는 젊은 식민지 교사의

것도 아니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스티븐처럼 예술가 지망생을 자처하는 식민지의 지식인인 챈들러는 정반대로 제국주의와 결탁한 옛 친구를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꾀하고 있는 매우 저급한 식민지 백성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의 독립이나 우매한 동족의 계몽이 아닌 런던으로의 탈출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챈들러의 모습은 진실로 “의로움”에 도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군자의 모습이 아닌 “이로움”을 좇아 지극히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인간관계에 몰두하는 소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쓰지도 않은 시를 상상하고 심지어는 미리서 영국의 비평가들의 비평을 상상한다(D 74). 작품을 쓰고자 하는 예술적인 의식이나 노력보다는 권력자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용 없는 망상을 통해 허무한 명성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배우고 생각지 아니하면 허망하여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論語』, 「爲政」, 15章)라고 주장하며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했던 공자의 경고를 연상하게 한다.

콜리스 바에서 만난 그 위대한 친구 겔러히는 “침울하고 창백한 얼굴”(D 75)에 친영과 신교도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하여 헤링은 성인과 현자의 땅인 아일랜드와 상업적 거인인 영국의 만남이나 예술과 종교 그리고 명상을 중요시하는 전형적인 켈트족과 어리석고 유물론적인 색슨족 사이의 만남으로 해석한다. 그는 또한 이 만남에서 영국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실제 영국인이 아니라 전에 더블린에 살던 아일랜드 인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를 더해준다고 주장한다(58).

마치 『율리시스』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벅 멀리건(Buck Mulligan)이 허공에 성호를 그으며 가톨릭을 패러디하듯이 “가톨릭식의 제스처”(D 77)를 쓰면서 파리의 향락적인 문화를 설명하는 겔러히의 관심사는 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환경과 감각적인 환락에 관한 것이며, 그의 이야기 중 일부는 그 신빙성조차도 의심스럽다.

이그너티우스 겔러히는 생각에 잠긴 채 시가를 빼꼼빼꼼 빨았다. 그리고 이내 역사가 같은 냉정한 말투로 그의 친구를 위하여 외국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어떤 모습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나라 수도의 죄악들을 개관했고, 그 중에서 베를린을 제일로 꼽는 듯 보였다. 몇 가지 일들은 그로선 장담할

수 없었다(친구들이 그에게 얘기해주었기 때문에). (D 76)

사실, 런던에서 성공한 기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켈러허는 “자신을 숨기고 있던 연기 뒤에서 얼마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D 78). 이러한 묘사는 그의 경험담 중 상당 부분이 연기 속에 감추어진, 허위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켈러허는 이러한 켈러허의 말투와 태도에 “다소 환멸을 느끼기 시작”(D 77)하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고 지속적인 부러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나마도 런던에서의 출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성공에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결혼생활과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켈러허가 다른 선약을 핑계로 자리를 파하고자 하자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결국 지금껏 동경해 마지않았던 친구와 자신의 사이의 “불공평한 차이”(D 80)를 뼈저리게 느낀 켈러허는 호탕한 친구인 켈러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세심한 성품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러한 켈러허의 심경 변화를 근거로 셴은 “둘 사이의 근거 없는 우정은 애초부터 그리 돈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106)고 주장한다.

### 3.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군자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나 소인의 마음은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군자의 관심사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적이거나 감각적인 이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는 항상 그 폭이 넓고 그의 마음은 평온하다. 그러나 현실적 이해득실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계산과 욕구가 많은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서 초조한 법이다. 또한 넉넉한 지혜와 덕으로 인하여 마음이 항상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군자에 비하여 소인은 지혜와 덕이 부족하므로 그에게는 언제나 불평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자기를 성찰하는 군자는 마음이 고요할 수 있지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의문과 의혹에 이끌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지금까지 겉모습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게만 알아왔던 친구”(D 71)가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찾아가는 콜리스 바는 평

소에는 언제나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장소였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괴감, 그리고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항상 그의 걸음은 빠르고 불안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지나쳤다. 심지어 낮에도 거리를 재빨리 걸어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으며, 밤늦게 시내에 나올 때는 언제나 걱정스러운 듯이 흥분하여 재빨리 길을 걸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공포의 원인을 자초할 대도 있었다. 그는 가장 어두컴컴하고 좁은 거리를 택했으며, 대담하게 앞으로 걸어갈 때는 그의 발자국 주변에 펼쳐진 침묵이 그를 괴롭혔다. 말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고, 때때로 흘러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그를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다. (D 72)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듯”(D 74)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주변의 장면들을 지켜보며 인생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갖게 된다. 챌들러는 그것을 “고요한 우울”(D 71)이라고 불렀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늘 불안하고 초조한 챌들러는 후에 그가 기대해 마지않았던 갤러허와의 만남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자 심경에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작품 첫머리에서 그를 출세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에 대한 과도하리만큼의 신뢰에서 벗어나 그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한다. “그처럼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D 70)고 극찬하던 그의 마음은 갤러허는 가문이나 교육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했으며, 자신은 값싸고 번지르르한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항변하고 있다(D 80). 이것은 한편으로는 갤러허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속물근성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후 맥락으로 파악해 보면 끝내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지 않는 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분을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論語』, 「學而」, 1章)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여 근심하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論語』, 「學而」, 16章)고 가르침으로써 군자의 대인관계의 근본을 밝혔는데, 채널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에 반하는 것으로 그에게 내재된 소인 기질의 일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4.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군자는 책임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도와 이치를 깨달아 매사에 삼가고 두려워하는 군자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책임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신에게서 찾아 반성하고자 하지만, 지켜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하여 경솔한 소인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먼저 탓하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꼬마 채널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시인 혹은 예술가 지망생으로서 써야 할 작품의 내용에 대한 치열한 사유나 실천보다는 그가 받고 싶은 칭송이나 누리고 싶은 영예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식민지의 소시민으로서의 타성에 젖은 나머지, 조국의 독립에 대한 고민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의 영향력을 통해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소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모든 욕망이 좌절된 후 그의 원망은 타자를 향한다. 다과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으며, 아내가 부탁한 커피도 사오지 못했지만, 그는 미안하단 말 한 마디 없이 과거의 흔적을 끄집어내어 원망을 시작한다. 어느 토요일에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비싼 돈을 들였던 것도 후회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도 후회한다.

분명히 아름다운 눈이었으며 얼굴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음을 알았다. 왜 저토록 무의식적이고 귀부인인 체하는 것일까? 차분한 눈이 그를 성나게 했다. 두 눈은 그를 불쾌하게 했고 그에게 두 눈에는 정열도 환희도 없었다. 그는 깰러허가 돈 많은 유대 여인들에 관하여 한 얘기가 생각났다. 그들의 까만 동양적인 눈은 얼마나 정열과 관능적 쾌락의 갈망으로 넘칠까! 왜 하필이면 사진 속의 저런 눈과 결혼했는가? (D 83)

한 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이나 가구, 집, 아기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탈출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인정되자 주인공은 그것들을 “천한 것”(something mean, D 83)으로 격하시키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천한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와의 기억은 집을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독서를 방해한다.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읽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고막을 꿰뚫었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였다. 그는 양팔이 노여움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아기의 얼굴 쪽으로 몸을 굽히며 고향을 질렀다.

“그쳐!” (D 84)

계속되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읽다가 멈춘 시의 구절은 순간 챌들러에게 자신의 삶과 그 구절의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마치 “좁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그녀의 육체”(D 84)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도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로 인식된 것이다.

헤링은 챌들러가 예술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의 주장을 소개한다. 하나는 휴 케너(Hugh Kenner)와 워렌 벡크(Warren Beck)가 주장한 “환경론”이고 다른 하나는 로버트 보일(Rober Boil)이 강조하는 “결핍된 재능과 소극적인 성격”인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그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59-60).

전반적인 작품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챌들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 더블린에서의 무기력한 삶이나, 아직도 갇지 못하고 빛으로 남아있는 가구 대금, 성질이 고약한 아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등 이 모든 요인들이 그의 무기력과 마비된 삶의 양상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킹즈 인에서 콜리스 바까지 가는 여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역사의식과 사회의식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요소의 복합체라 할 수 있는 꼬마 챌들러의 ‘소인기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맹자가 이르기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나 친해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어짊(仁)을 반성하고, 사람을 다스리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혜를 반성할 것이며, 예로써 사람을 대하나 답이 없으면 자신의 공경을 반성하라”(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孟子』, 「離婁章句」上, 4章)고 했다.

비록 챌러의 상황이 식민지 지배구조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그러한 외부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외부적 요인의 탓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 IV. 결론

「작은 구름」을 비롯한 장년기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압박, 그리고 개인의 의지력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불만스러운 직장생활과 실망스러운 가정생활에 분개하고 있는”(Bowen and Carens 177) 더블린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챌러가 귀가한 후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한 에피소드 역시 예술가로서의 그의 기질이 확충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친구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한 꿈에 대한 욕망을 시집을 읽으면서 다소나마 해소해보고, 아직 쓰지 못한 자신의 시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 후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내의 비난,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얽혀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분노하기도 하는 꼬마 챌러에게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불가항력의 환경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성장해 온 더블린의 한 성인으로서의 챌러는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 치하의 무기력한 소시민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처럼 암울하고 서글픈 그의 현실에 대한 연민어린 묘사는 진실로 그를 수식하고 있는 “꼬마”라는 조롱조의 수식어와 함께 서술상의 균형을 이루어 작품의 예술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작품의 말미에 챌러는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물러나 아이의 울음이 잦아드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러한 챌러의 모습은 후손에게 온전히 독립된 조국을 물려주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는 기성세대의 비애감과

가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심의 가책과 연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자책의 눈물”(tears of remorse, D 85)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해소 시킨 엘리야의 “한조각 구름”(열왕기상 18장 44절)처럼 그와 그의 가정이 겪어온 불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순간 잠깐 비쳤다 사라질 축어적 의미의 “한조각 구름”에 불과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쏟아내고 지금까지의 채들러와는 전혀 다른 채들러를 만들어 낼 한 풀이를 위한 구름이 될 것인지는 그에게 내재해 있는 군자와 소인의 속성의 발달 여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性相近習相遠, 『論語』, 「陽貨」, 2章)고 주장하며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곧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 『論語』, 「學而」, 1章)라고 역설하며 외부적인 자극으로서의 학습과 내적 반응으로서의 실천을 통한 자기계발을 강조했던 그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또한 “군자가 예악을 배우면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예악을 배우고 도를 알면 범위를 지켜서 남을 위해 일을 하도록 만들기 쉽다”(君子學道則愛人 小人 學道則易使也, 『論語』, 「陽貨」, 4章)고 가르침으로써 군자와 소인의 개념이 학습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가르치고 있다.

마비에 걸리고 노오몬의 형태를 띤 “친애하는 지저분한 더블린”의 모습을 꼼꼼하게 보여줌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그와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조이스의 인물묘사는, 통치군주와 그의 백성 또는 도덕적 지향점과 지양점이라는 이분법적인 의미개념에서 벗어나, 도덕적 지향점과 그에 이르는 출발점으로서의 군자와 소인에 대한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인의 성품에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군자의 성품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개연성은 식민지의 한 초라한 예술가의 초상에 내재된 또 하나의 인간적 속성을 발견하고, 그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전주대)

## 인용문헌

- 김승혜.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2.
- 김종건 역. 『더블린 사람들/ 비평문』. 서울: 범우사, 1997.
- \_\_\_\_\_. 『제임스 조이스 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노인숙. 「공자에 있어서의 인간의 완성」. 한국동양철학연구학회. 『동양철학연구』. 21집 (1999): 273-289.
- 범선균 역해. 『孟子』. 서울: 해원출판사, 1997.
- 성백효 역주. 『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 이경남. 「『論語』에 나타난 小人에 관한 研究」, 『동양철학연구』 제32집(2003): 153-182.
- Attridge, Derek,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Bowen, Zack and James F. Carens, ed.,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 Bloom, Harold, ed. *James Joy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Ellmann, Richard, ed. *Selected Letters*. New York: Viking Press, 1975.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I, II and III. London: Faber & Faber, 1957.
- Frawley, Oona, ed.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2.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Vintage, 1986.

- Parrinder, Patrick. "Dubliners." *Modern Critical Views: James Joyc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6. 263.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Riquelme, John Paul. "Metaphors of the Narration/Metaphors in the Narration: 'Evelin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ames Joyce's Dubliner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8. 73-87.
- Senn, Fritz. "Clouded Friendship: A Note on 'A Little Cloud.'"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ames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104-111.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 Abstract

### Chandler as a Small Man in “A Little Cloud”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rratives of “A Little Cloud,” the eighth story in James Joyce’s *Dubliners*, as well as to reconsider some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of “Little Chandler,” one of its main characters,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the superior man”(君子) and “the small man”(小人) in Confucius’ *Analects*.

The *Analects* contains a considerable number of comparative interpretations of the two above-named opposite figur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two figures, which refer to the ruling classes and commoners respectively, was changed into a moral and ethical concept by Confucius, so that the former came to be regarded as a positive moral figure and the latter as one to be sublated.

In the story “A Little Cloud,” Thomas Chandler, an aspiring but frustrated artist in his thirties, appears as one of the paralyzed and gnomonic characters surviving in the city of Dublin. Not only because of his small and fragile figure but also because of his words, activities, intentions and desires, he strongly reminds the reader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man in the *Analects*.

Chandler is to meet for the first time in eight years one of his friends, Gallaher, who allegedly had left “dear dirty Dublin” to become a prominent reporter in London. As ‘a poet manque’ Chandler also wants to ‘get on’ in London with the help of his successful friend. However, he does not seem to have either any talent or any artistic consciousness as a poet. He just seems to be a small man, “who always looks for lower physical values,” “who is always conversant with gain,” “who is full of distress resulting from his failed desire,” and “who always lays blame on others in stead of himself.”

Joyce has successfully used the characterization of Chandler as one of his well-polished mirrors to ridicule and criticize the paralyzed situation of the people of Dublin, and the physically and spiritually small man as such may also be interpreted with the same significance and impact from the Confucian point of view.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A Little Cloud,” gnomon, Pre-Chin Dynasty Confucianism, Superior Man, Small Man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작은 구름」, 경절형, 선진유가, 군자, 소인)

논문접수: 2010년 5월 19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2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4일